

‘월드컵 2골’ 터뜨린 조규성, 몸값 대폭 상승

축구 이적 전문사이트, 월드컵 활약 선수 53명 이적료 추정
한국 선수 유일 포함 조규성, 250만 유로(약34억원)…4배 ↑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2골을 터뜨리며 주목 받은 조규성(전북)의 몸값이 대폭 상승했다.

24일(한국시간) 축구 이적 전문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활약한 주요 선수 53명의 새로운 예상 이적료를 추정해 전했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53명에 포함된 조규성은 250만 유로(약 34억원)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60만 유로(약 8억원), 월드컵 직전인 지난달 140만 유로(약 19억원)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규성은 카타르월드컵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머리로 2골을 터뜨리며 정통 타겟

스트라이커의 탄생을 알렸다.

축구 실력 못지않게 잘 생긴 외모와 분위기로 세계 여성팬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월드컵 이전 2~3만명 수준이었던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현재 29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2시즌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고 K리그 1(1부) 득점왕을 차지한 조규성은 월드컵 활약을 발판으로 유럽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외신을 통해 셀틱(스코틀랜드), 페네르바체(튀르키예)가 언급됐다.

한편, 이번 월드컵에서 8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킬리안 음바페(프랑스)는 1억6000만 유로에서 1억8000만 유로로 가치가 상승했다.

뉴시스



벤투 “계약기간 이견으로
韓 떠나…존경·애정 받아”
자국 포르투갈 언론과 인터뷰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12년 만에 16강으로 지휘한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와 재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기간에서 이견이 있어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언론 헤코르드는 24일(한국시간) 한국 대표팀의 지휘봉을 내려놓은 벤투 전 감독과 인터뷰를 게재했다.

벤투 전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는 4월에 재계약과 관련해 얘기를 나눌 때, 재계약을 원했다. 9월에도 (원했지만) 계약 기간에서 차이가 있었다”며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한 차례 더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국을 떠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과의 16강전이 끝나고 정몽규 협회장과 선수들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2018년 8월 지휘봉을 잡은 벤투 전 감독은 카타르월드컵 16강전까지 역대 한국 A대표팀 지도자 중 가장 길게 팀을 이끌었다.

월드컵까지 가는 여정에서 고집스럽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는 독심 있게 자신의 철학을 대표팀에 녹였고,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로 답했다.

벤투 전 감독의 인터뷰 내용처럼 재계약 기간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앞서 협회도 확인한 사실이다.

앞서 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 무렵 당시에는 대표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계약 연장을 제안했고 카타르월드컵 이후 아시안컵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벤투 감독은 4년을 더 맡게 달라고 해 연장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에는 벤투 감독에게 대표팀을 8년 맡긴다는 데 대해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연봉 협상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협회 입장에서 카타르월드컵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까지 4년 더 지휘봉을 맡긴다는 데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벤투 전 감독은 “계약 기간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보낸 4년 이상의 세월에 대해 “선수를 모두 프로 정신이 남더라고, 희생할 줄 안다”며 칭찬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존경과 애정을 보여줬다”며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하는데 힘들었다. 공황으로 찾아와 작별 인사를 전해준 팬들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고 더했다. 벤투 전 감독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뉴시스

직전 시즌 남자배구 준우승팀
KB손보, 리그 꼴찌 추락

지난 시즌 막판까지 대한항공을 위협했던 준우승팀 KB손보보험이 꼴찌로 추락했다. KB손보는 역대 최고 외국인 선수 케이타가 떠난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시즌 개막 후 꼴찌인 7위에 머물던 삼성화재는 지난 2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홈 경기에서 OK금융그룹을 꺾었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4승13패 승점 14점으로 리그 7팀 중 6위로 올라섰다. 반면 2경기를 덜 치른 KB손보는 4승11패 승점 12점으로 6위에서 7위로 내려앉았다.

KB손보가 오는 27일 한국전력코 리그 경기에서 이기면 다시 삼성화재를 제치고 6위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순위는 KB손보에게는 굴욕적인 측면이 있다.

KB손보는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 케이타를 앞세워 준우승을 차지했다.

케이타는 V-리그 역대 최고 선수로 평가받았다. 케이타는 지난 시즌 KB손보보험을 역대 최초로 정규 리그 2위에 올려놓고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무대까지 진출시켰다.

그렇던 케이타가 이탈리아 베로나로 이적했고 이번 시즌 발탁한 외국인 선수 니콜라 델라냐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팀을 떠났다. 이 와중에 KB손보는 8연패를 경험했고 순위는 급전직하로 떨어졌다.

전남 드래곤즈 베테랑 미드필더 이후권과 재계약 체결



90경기 출전 6득점 4도움 기록
왕성한 활동량·상대 길목 차단

재도약을 준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베테랑 미드필더 이후권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권은 19시즌 여름에 전남으로 입단하면서 4시즌을 소화했다.

전남 소속으로 90경기 출전 6득점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후권은 23시즌 전남에서 100경기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후권이 전남 소속으로 100경기 출

전을 달성하면 35번째 세자리수 경기출전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광운대 출신의 이후권은 부천, 상주삼무, 성남, 포항 그리고 전남에서 활약한 베테랑으로 K리그 통산 206경기 출전 10득점 11도움을 기록 중이다.

K리그 10년차인 이후권은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전성기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라운드 안팎에서 후배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다.

왕성한 활동량과 상대 길목을 차단하는 미드필더 이후권은 측면 수비수로도 활동할 수

있으며 득점도 기대하고 있다.

이후권은 “22시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이다”며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전남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 23시즌 잘 준비해서 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권은 1990.10.30. 생으로 MF. 키 180cm, 몸무게 75kg. 출신학교는 대성고 > Kickers Offenbach(키커스 오펜바흐) > 광운대를 나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사이클 희망’ 나윤서·김채연, 2022 한일국가대항 학생사이클대회서 메달 싹쓸이

전남미용고 나윤서 3관왕 차지(스프린트·경륜·팀스프린트) 및 최우수선수 전남체고 김채연도 다수입상



대한민국 사이클 희망인 전남미용고 나윤서, 전남체육고 김채연이 '2022 한·일 친선 학생사

이클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메달을 싹쓸이 했다.

전남자전거연맹(회장 정 동)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그린돔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일 친선 학생사이클대회'에서 전남미용고 나윤서와 전남체육고 김채연이 3관왕 및 최우수선수, 다수메달 획득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대회는 연맹에서 우수학생선수를 양성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사이클 정보교류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일본자전거연맹과 협력하여 이뤄졌다.

19세 이하부류 이뤄진 선수단은 남녀 각각 7명씩 선발되어 출전했다. 그 중 전남은 여자부에 나윤서(전남미용고)와 김채연(전남체육고)가 선발되어 경기에 나섰다.

스프린트경기에서 나윤서는 11초 836, 김채

연은 11초916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경륜경기에서 나윤서가 12초168로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뒤로 김채연이 들어와 동메달을 차지했고, 팀 스프린트 경기에서 나윤서와 김채연이 팀을 이뤄 출전, 47초94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500m 독주경기에서는 1위와 불과 영점몇초 차이로 아쉽게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나윤서가 37초 435로 은메달, 김채연이 37초473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나윤서는 총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김채연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나윤서는 3관왕을 달성,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했다.

정동 전남자전거연맹회장은 “이러한 국가대항전에서 이 같은 성적과 기록을 거둬 매우 기쁘고 두 학생에게 축하한다”며 “이번 한일국가대항 학생사이클 대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4년 연속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 선정...손흥민 “한국 축구 발전 위해 더 노력하겠다”



4년 연속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30·토트넘) 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산 7번째 올해의 남자 선수상
EPL 득점왕에 월드컵 16강 진출

손흥민은 23일 서울 중구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2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았다.

‘올해의 선수’는 한 해 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선수를 전문가와 기자단 투표로 선정하고 있다.

손흥민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이자, 2013년 첫 수상 이후 통산 7번째로 이 상을 받게 됐다. 남자부 올해의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19명과 협회 출입 언론사 축구팀장 47명의 투표로 이뤄졌다.

손흥민은 총점 182점을 얻어, 148점을 얻은 김민재(나폴리)와 118점을 받은 조규성(전북현대)을 제쳤다.

손흥민은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데 이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에 앞장섰다.

또 자신의 100번째 A매치였던 칠레와의 친선경기에서 터뜨린 프리킥 골을 포함해 올 한 해 프리킥으로만 3골을 넣기도 했다.

카타르월드컵을 마친 뒤 13일 영국으로 돌아간 손흥민은 영상을 통해 수상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상은 밥장 설치며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 대신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한국 축구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